발렌시아가의 선택과 카덴스

현대 패션에서 공간의 분리

Aldo Poblete Varas

차가운 북쪽. 공격 경보. 완전히 파괴된 안전지대. 미적 파국, 청년의 해방. 영원하고 야생적인 시로서의 어둠. 파괴하는 로봇. 지옥 안의 런웨이. 지정학적 정신병원 안의 사변. 급진적 기하학 안의 아름다움. 신체의 기질 안의 형태와 색. 열에 들뜬 신화적 착란의 초보적 초자연 현상들. 후기 감각 체제의 황량함 속 스펙터클. 개념의 숲 황혼에 도사린 수학적 엄격함의 천둥. 잃어버린 균형의 준형이상학적 반영으로서 금지된 신들을 불러냄. 시장에 의해, 그리고 미적 종교의 생성에 의해 변형된 기체. 셀린을 읽는 불운한 동물들은 침묵이 여러 세대의 디지털 돌연변이 전체에 뿌려놓은 이단적 기후를 알아본다. 운송과 분해, 자성, 그리고 출판물 유통 능력. 우주적 기형 입문. 복음 전도자의 기체. 바깥에서 검은 신은 모든 것을 묻어버린 천상의 대리석을 자신의 수백만 신체에 입히며, 모든 것을 희생에 내어준다. 굶주림, 재앙, 무의미. 탁자에 펼쳐놓은 무기들. 수백 년에 걸친 대화의 결론들. 이 클럽에 입장하는 데 필요한 신분증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아무도, 절대로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프레타포르테의 민주화.

다시 한번, 클럽 안의 동물들. 너무 날카로운 리프의 사변들, 독재 체제에 접해 있는 것. 도쿄에서 베이징까지, 경로는 제약받고 낙담해 있다. 전투 가방들. 포효 안의, 특정한 코드를 휘두르며 특정한 신진리를 찾는 청소년의 비명 안의, 과도하게 합성된 부스러기들. 다의성의 탄생적 파국. 예술가의 책략과 불안. 배경은 특정한 신체들, 과도하게 착취되고 포화된 특정한 본질성들이 자신의 가능성의 근거 자체에서부터 움직여진 거대한 초대형 제도들처럼 나타나도록, 이런 식으로 처신한다. 기체가 초월론적 거대 기업이라는 관념에 접속하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기술적 이정표처럼. 그곳에서 신체성은 자신의 세계-가능성 안에서 개념화된다. 그곳에서 최소한의 실존이 구상되며 회화와 음악, 그리고 거대한 것의 무게에 완전히 길들여진 비평의 짙고 끈적한 전율을 스친다. 실제의 판본은 불순한 것과 도덕을 설교하는 것의 대성당이 된 디지털성의, 예속시키는 정상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기가 이보다 어려웠던 적은 없다. 결국, 옷차림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가? 일라이자 더글러스는 브랜드 안에서 무엇을 변형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준미학적 틀의 수직화된 기하학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해부를 위해 수술대에 놓인 이 거대한 동물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더 큰 무언가의 리좀 안의 마디인가? 세계의 근대화는 물질성의 인격화를 추동하는 이상들 가운데 하나다. 인류 2.0을 말하려면, 그것은 우레 같은 파툼에서 해방된 역사의 그라마톨로지적 체제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고급문화의 핵심에 있는 전쟁, 진보의 상징, 그리고 복고적 기계장치의 무력화. 그것은 탁자 위 상징에 울려 퍼지는 사안들의 징표이며, 블랙 메탈의 머리 없는 힘, 수평의 물길을 지닌 무한한 강이며, 이 모두는 말단적이고 자동화된 흐름의 새로운 물질성에 결속되어 있다. 소박한 현상학의 전면적 거부. 여기서 초월론적인 것은 잠재적 텍스트의 다의적 힘과 상관되지 않으며, 바로 거기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학으로부터 발굴할 수 있는 진정한 관심이 있다.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고, 감염시키고, 자신의 가능 조건을 재해석하는 것은 대상 자체, 물질 자체다. 그것은 물자체적인 것이 무대에 들어오는 일이며, 한계를 긋는 눈에는 절대 자체를 흡수하기를 갈망하는 기술과학적 자본주의의 가장 비천한 현현을 나타내는 형태로 들어온다. 그러나 그런 독해들은 현상태에 종속되기는커녕, 특정한 인간 경험의 급진화가 해방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데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

무한한 경직성. 콘크리트, 구체적 개념. 시멘트, 서양의 토대. 과거에 새겨져 있지 않으며 고대의, 자연적인 고전 그리스에 아무런 암시도 보내지 않는 미래. 극지의 검정, 생 자체의 검정. 레인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인류 안에 거주한 디지털적인 것에 박힌 반영. 되찾고, 되살린 것. 기체에서부터, 세계들을 계속 집어삼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동물의 만족. 영토의 소독, 회색, 네오도쿄의 선로를 따르는 측면성. 동등한 소리 또는 소음, 불가능한 소독. 중앙난방의 가격은 무한하다. 해방적인 콘크리트는 로스앤젤레스나 다른 어떤 대도시의 속도든 의식 안에서 탈중심화할 수 있는 무한한 구조적 지평을 통해, 우리의 이해를 강제로 중심에 놓아왔다. 누메논 안에서, 현현의 질. 급진적 자기의식. 누가 이런 식으로 관념들 사이를 스키로 가로지르는가? 이런 형태들의 지속가능성을 무심코 흡수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공간을 공유함. 중립적 장치 안에서 개념을 중심에 둠. 침묵. 네온의 힘, 해체적 패턴 안에서 비합리적인 것의 도덕적 우월성. 예술은 물속의 호두처럼 갈라져 열린다. 검은 물, 절대 공포의 장에 맞서 실시간 방어를 구축할 수 있는 결정. 원함이 원하는 것은 액체에 의해, 스크린과 템플릿, 도식, 의식, 사탄주의, 고급

재료, 그리고 그 고통의 주변부에서 순환의 진행을 멈추는 전자 드럼의 유행에 의해 달래지는 것인 세계에서. 아름다움이 디자인 학교와 예술 아카데미와 유기적 실험실의 정신적 원룸이 남긴 발자국 속에서 새로운 가격을 찾기를. 자기 수용의 출현.

사변적 연금술, 서양 미적 정전의 교의에 따라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양식과 연결의 기체. border-line. 초월은 벽에 맞서, 그리고 포스트휴먼 이미지 생산의 우둔한 능력에 맞서 영구적인 전쟁 중이다. 모든 내재의 배후에는 비범한 의심의 사나운 필터가 살며, 거기서 야만은 고급문화와 공존한다. 과열된 체제의 모든 퇴폐 배후에서, 자의식적인 구조적 차가움은 어떤 분위기를 간직한다. 어떤 맥박은 노력의 재앙 속에서, 구제할 길 없고 악마적 전문화를 넘어선 생의 DJ의 무의미 속에서 무언가를 말해줄 수 있다. 용서할 수 없고, 퇴행적 탁월함으로 재앙이 된 이 벙커의 우주적 공간에 들어온 밴드의 노력 안에서, 모든 것은 모델 안에서 일어나고 개념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패션의 지정학, 천상 전략가의 합리성, 불협화음의 신조어가 주는 알고리즘적 행복에 몸을 맡긴 생의 힘. 언제나 심사숙고한 소음의 파종과 자비의 예행연습 속에서, 캘리포니아와 뒤셀도르프와 오사카는 어떤 형식적 규격화에서도 멀리 떨어진, 낯설고 아득한 언어의 진정성을 감염시키려는 이질적 창의성으로 작동한다. 자연적 생성은 그 언어를 단조로운 소리, 기억의 앰비언트, 자신과 삼백 번 동일하면서 자신의 그림자들과는 다른 것으로 다시 바꾸려 한다. 언어의 횡령, 감각의 청렴함. 유령들은 장식적 필치 속에, 재단실에, 그리고 선망의 그릇 안에 산다. 형식적 보충물, 비형식적 부적합. 시간 바깥의 환멸에 의해 미리 닫힌 것. 폴리머, 실리콘 유령들, 자연적 운명이 이 잔치에 가져올 수 있는 순간성을 지닌 힘 속의 엑토플라즘적 환원들.